

기술있고 돈 없는 기업에 中企판 ‘햇살론’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 을 12조 지원 호남권 작년 1407억원...전년비 150% 늘어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다양한 온렌딩 방식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 정책금융의 발전적 승계를 위해 지난 2009년 10월28일에 자본금 15조원으로 설립된 기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온렌딩(On-lending)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금융으로 공사가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은 자신의 책임 하에 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시장친화적 선진금융기법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신용등급 A 이상의 우량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존 금융권에 맡기고 성장가능성은 크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 은행들이 저금리 지원을 꺼리는 B~BBB+ 신용등급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회사 설립 후 3년이 경과하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단 금융업과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공사는 또 중개금융기관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되 최고금리(금리Cap)를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저리자금 조달에 기여하고 있으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중개금융기관 신용위험의 일부를 분담하는 신용위험분담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출액 10억원~600억원의 업체만 가능하며 녹색산

업 영위업체는 매출액 상한기준 없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평소 자주 거래하는 중개금융기관(15개 은행)을 방문·상담 후 해당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공사 앞 온렌딩 차입을 요청하면 된다. 공사는 해당 업체에 대한 적격 심사 후 중개금융기관 앞으로 승인 일보한다. 또 온렌딩대출 평균금리는 은행의 일반 중개대출금리에 비해 0.5~1% 가장 낮은 것으로 추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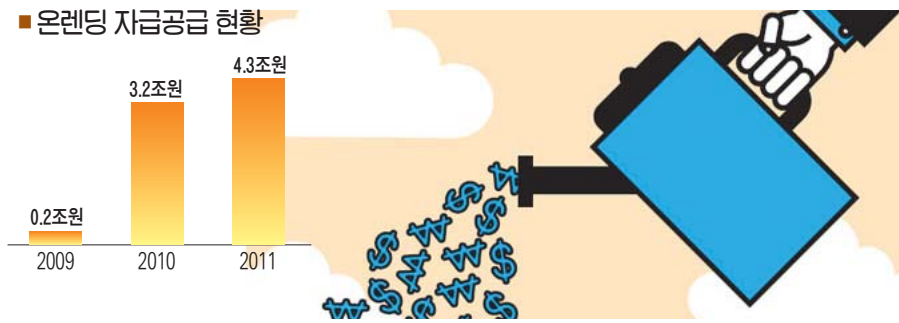
온렌딩은 정책금융공사가 지난 2009년 10월에 처음 도입했으며 그동안 7조원, 지난해만 4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호남지역에 대한 온렌딩대출 지원액은 지난 2010년 562억원에서 지난해 1407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50% 증가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올해는 모두 12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12일 “올해도 지역 내 중개금융기관 영업점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호남지역 온렌딩 공급 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도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계획이다. 특히 한 방면으로 외화로 온렌딩 대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외화 조달력이 우수한 공사가 외화 온렌딩 방식으로 실수외화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우선 중소·중견 해운업체부터 온렌딩 방식으로 달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운업체가 유럽발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타격



구분	내용	비고
외화대출	- 온렌딩 방식 외화 대출 - 외국인 설비 투자 등 지원 - 해운사 3000만달러 우선 지원	- 대출 총액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결정 - 자금 수요 조사 추진
지분 투자 확대	- 작년 2580억원·내년 5700억원 - 대기업과 우수 중기 공동투자	- 직접 투자이기에 담보 불필요 - 대출 일련도 지원 탈피
기술력평가부 대출 확대	- 담보 대신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 - 관련 대출 실적 많은 은행에 온렌딩 규모 증액 등 혜택 부여	- 담보 의존 대출 관행 탈피 효과 - 무담보 대출 인한 대출 위험을 공사가 은행과 분담
청년창업펀드	- 올해 10월 이후 400억원 조성 - 39세 미만 창업자 지원	- 창업 초기 중소기업 지원 효과 - 대학 창업지원기구나 네트워크 강화

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사다.

외화 온렌딩 대출의 전체 규모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당국의 통화·환율 정책에 따라 공사의 외화 대출 지원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또 올해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담보 제공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지분 투자를 2010년 2580억원에서 내년에는 57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담보가 필요 없으며, 중소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품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잘 파악하고 있는 대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관계자는 “주식 취득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을 취득해 중

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 대신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하는 ‘기술력 평가부대출’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기술평가센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 3곳 가운데 한 곳에서 기술력을 평가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기업을 공사의 ‘특별 온렌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 온렌딩 대상이 되면 온렌딩 취급 은행이 대출 후 돈을 폐일 위험을 공사가 함께 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온렌딩 대출을 받기 쉬워진다.

기술력 평가부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는 온렌딩 자금 배정 규모를 늘리는 인센티브도 부여해 은행들이 담보가 아니라 기술력을 기준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학사업·사랑의 김치·복지시설 위문...

사회공헌 활동 앞장

지난해 12월22일 한국정책금융공사 진영옥 사장과 임직원 30여명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동천요양원을 방문했다. 중증장애인들의 재화를 돕는 요양시설인 이곳에서 진 사장과 임직원들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20여명과 함께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트리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힘을 모아 성탄절 트리를 완성한 뒤에는 마술공연이 이어져 흥겨움을 더했다.

진 사장은 “이번 활동이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봉사는 개념을 넘어 직원들에게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 임직원들이 동천요양원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동안 이곳 지적장애인과 함께 자전거 타기, 도자기체험 행사 등 여러 가지 사회

육수수 등을 구입해 6개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특히 정책금융공사가 공기기업으로는 최초로 전국 모든 상업계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해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서·산간벽지, 농어촌 지역 등 전국 191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 1인당 200만원씩 총 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선발된 장학생은 공사의 고졸 신입사원 채용 때 우대해 상고생 지원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 측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원해 이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최근 고졸사원을 6급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320여명이 지원했으며 5명을 뽑았다. 공사는 고졸사



진영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지난해 말 서울 용산구 동천요양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책금융공사 제공>

공헌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회공헌활동은 이웃사랑·문화사랑·교육사랑·환경사랑의 4대 중점 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높아지고 정부의 열린 채용제도 정책이 펼쳐짐에 따라 1사1촌 농촌사랑운동, 고졸자 지원 강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와 결연을 맺고 있는 정책금융공사는 그곳 주민들이 배추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절임배추 4000만여개를 구입해 봉사단체들과 감장 담그기 행사를 한 뒤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어려움에 처한 농촌도 돕고 소외된 이웃도 돕는 ‘일석이 조’ 공헌활동을 한 것이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결연마을 농산물 직거래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임직원들이 나서 10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입했고 추석 때에 감사

원이 입사 뒤 정규대학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대화과정을 마치면 대졸 출신 직원과 똑같은 기회를 주어 공정하게 경쟁하고 학력차별 없이 능력과 노력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서다.

금융공사는 또 지난해 12월18일 새터민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운동회를 개최했다.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계층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 밖에도 금융공사는 환경행사, 복지시설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타기 행사를 개최했고, 장애인요양시설 내 도서관 조성, 교구·동화책 기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진영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온렌딩 대출 성공 정착...따뜻한 정책금융 펼칠 것”

“정책금융의 패러다임도 달라져야지요”

진영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은 12일 ‘개발시대에 정책금융을 주도했던 산업은행과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사장은 “과거 국책은행이 했던 것처럼 지원 대상 기업을 직접 심사, 선정해 자금을 대출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정책금융도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진 사장이 내놓은 금융기법 ‘온렌딩(Onlending)’이다. 진 사장은 “올해 최고의 성과는 온렌딩 대출제도의 성공적 정착”이라

며 “연간 목표액 3조3000억원을 1조원이나 목표를 초과달성 했다”고 자랑했다.

그는 “단순히 규모만 늘어난 게 아니다. 전체 온렌딩 자금 중 3년 이상 장기 자금이 90%”라며 “또 온전자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시설자금 비중(54%)이 더 많아 제대로 된 정책자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올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어려운 한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금 공급계획의 절반 이상인 6조1000억원을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했

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신수종 사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함으로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하겠다”며 녹색·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지도 밝혔다. 아울러 “사회공헌활동 뿐만 아니라 일자리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정책금융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온렌딩 대출 중개금융기관을 2개 더 추가해 17개로 늘리고 신용위험분담제도도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고품질 녹차
작살차
친환경 다원
한국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
T.222-2902.3973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각종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의 명품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的 차만 납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2009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감농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사Set